

# 패스트트랙 처리 해법 ‘칩칩산중’

검찰개혁·선거법 처리 시차 6일…패키지 처리 가능성 부상  
의원정수 확대, 4당 공조 걸림돌…예산안 처리 시한도 변수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정안과 함께 다양한 패스트트랙 해법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정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한 달 뒤인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표결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11월 27일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부의된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실타처럼 얽힌 이들 법안이 불과 6일 시차로 부의되는다는 점에서 순차·분리처리보다는 ‘패키지 처리’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들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힘을 모았던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조 복원으로 ‘교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의 ‘의원정수 확대’ 카드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 4당이 점점을 찾더라도 한국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및 표결 수순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거진 물리적

충돌이 재연되면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시점도 관건이다.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맞물리게 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예산안을 고리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수 있다. 12월 3일 전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12월 10일이 ‘1차 시한’이 된다. 이후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12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선거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된다. 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1월 25일이다. 막바지에 이르러 과연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극적 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이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어떤 묘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나아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가 복원된다 하더라도 표결 시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 이탈표 가능성,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 상황 등으로 표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총선 물갈이 폭 커진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때 불출마자 빼고 ‘하위 20%’ 선정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전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전체 모수에서 총선 불출마자를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위 20%의 폭이 커지는 것으로, 오는 4월 본격 시작되는 의원평가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데다 만약 명단까지 공개되면 사실상 ‘데스노트’에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전체 의원(128명)의 20%는 25명이다. 여기에 불출마자가 10명이라고 가정, 모수에서 이들을 빼고 계산한 하위 20%는 23명이다. 그러면 하위 20%와 불출마자는 총 33명으로 전체 의원의 25.6%에 해당한다. 즉, 민주당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불출마자인 셈이다. 현재 당에서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한 대표도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당 안팎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불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는 의원은 9명 정도다. 이 대표 외에도 이철하·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김성수·서형수·이용득·제윤경·최운열 의원도 불출마 기류가 강하다. 원혜영 의원도 불출마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용퇴 압박’을 받는 당내 3선 이상 중진과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등에서 불출마자가 나올 경우 모수는 더욱 적어질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불출마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불출마자가 20명이라면 ‘하위 20%+불출마자’ 규모는 전체 의원의 32%, 즉 3분의 1에 육박하는 41명에 달한다. 이 같은 의원평가 방침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5~14일 다면평가,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 작업 등을 거쳐 내달 초 자동응답 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같은 달 23일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태국 출국

### 2박3일 아세안 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 방문에 나섰다. 지난달 31일까지 모전상을 치른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북임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특히, 아세안 조 일본 총리와 조우할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靑 국감 파행’ 네 탓 공방

민주 “고압적 질의 국민 실망” vs 한국당 “靑 오만이 자초”

여야는 지난 1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감사가 파행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측은 현 안보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우끼지 마라”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강요와 억지’가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청와대 관계자들

에게 일방적 답변을 강요하고, 고압적 질의를 반복했다”며 “합리적이고 품격있는 국감을 원하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피답가관 관계자들에게 심한 모델감을 주는 질의가 계속됐다”면서도 “청와대 역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성숙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

## ‘심금 라이브’ 알릴레오에 도전장?

심상정 8일부터 유튜브 방송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는 8일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며 진보 유튜브계의 ‘1인자’ 격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에 도전장을 낸다. 프로그래머 이름은 심 대표의 성(姓)과 시민들의 심금을 울리겠다는 의미를 결합시킨 ‘심금라이브’로 결정됐다. 다양

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짜여진 각본 없이 즉석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정의당 측은 전했다. 방송 시간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 이후인 저녁 시간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와 비슷한 시간대에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당선 무효형 불합리” 위헌심판 제청

인용시 현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상고심 장기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현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하위사실공포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

로 보인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현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현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연합뉴스

##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투자·매도·교환

- 계림동 도로점 2층 주택 땅 142㎡ 건평 164㎡ 환경 좋음 2억
- 월산동 무진중 건너편 내대지 234㎡ 원룸 등 적합 3억5천
- 서구 마루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창성동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 청고 137㎡ 전망 좋음 2억5천
- 국성동 옥과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금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3300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용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 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청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조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접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 상가 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청고 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0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특급 물건

- 금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6층 32평형 지하철 1분 5억7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9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측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2019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항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9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항우 자녀 8명(예정)

###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항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작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위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m> 참고

###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9422(사무국장 김상수 010-4622-2397 (이메일 kss237@han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항우회 송년회 날(12월말 예정)
- ◆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항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